제19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시찰 상보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주요 어촌어항 견학

제19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38명이 지난 6월 2일부터 11일 까지 9박 10일간의 해외 선진 어촌어항 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조사단은 일본의 토요하마, 모로자키, 히마가 어항과 영국의 람스게이트(Ramsgate)항, 도버(Dover)항, 프랑스의 칼레(Calais)항, 이탈리아의 나폴리(Napoli)항, 소렌토(Sorrento)항 등을 시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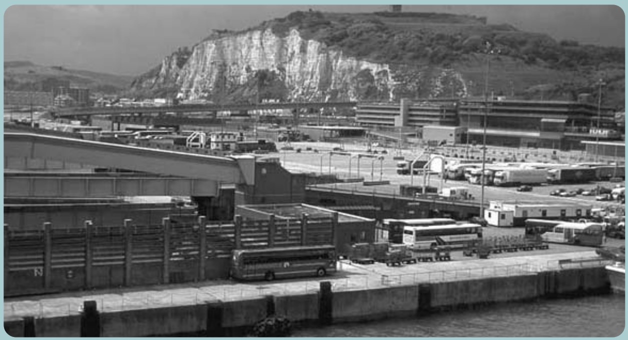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한 이 시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어촌어항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기술용역회사 임직원 등 어촌어항관련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 선진 어촌어항을 현지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시찰국 관계자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우호를 증진했다.

토요하마 어항 -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 의해 소파공, 낚시 잔교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모로자키 어항 - 접안능력의 확보와 낙도를 연결하는 거점항으로서의 시설정비를 실시하였다. 사진은 부잔교 시설

히마가 어항 - 문어의 섬, 복어의 섬, 여름 어린이 어드벤처의 섬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관광 매출액이 약 40억엔에 달한다.

람스게이트 항 - 아름다운 백사장, 현대적 편의시설이 있고 국외로의 주말여행용 크루저 유로스타가 운행되는 항이다.



도버항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의 하나로 도버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칼레항 - 페리안벽과 화물안벽 외에 플레져보트용 안벽이 따로 있고, 수문식 요트항과 작은 낚시선을 위한 항이 따로 있다.

소렌토항 - 수공예 목조품과 치즈, 올리브유 등의 특산품 가공과 관광업을 주요산업으로 하고 있다.